

‘놀부와 오르르 펭귄’ 어린이 취향 저격

김혜영 작가 ‘도깨비그림책 문학상’ 전국 어린이 심사위원 10명이 심사 흥부와 놀부 등 이야기 궁금zug 유발 그림책, 만화처럼 터치 ‘이색 재미’

제4회 도깨비그림책 문학상에 김혜영 작가의 ‘놀부와 오르르 펭귄’ (이루리북스)이 선정됐다. 도깨비 그림책 문학상을 제정한 (재)삼진강 장학재단이 제정한 도깨비그림책문학상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어린이들이 심사위원이 돼 작품을 선정하는 문학상이다. 어린이들이 아동문학의 주인이며, 착한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읽고 비평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런 취지 때문에 작가들에게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작품과 생각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심사는 자원을 원칙으로 작가가 스스로 심사위원에게 자신의 작품에 대해 어필을 해야 한다. 전국에서 응모를 통해 위촉받은 10명의 어린이 심사위원이 진행한다는 점도 이색적이다. 보통의 문학상이 중진 작가나 원로 작가 등 저명한 인사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는 점과 변별된다. 장학재단에 따르면 “비록 4회 밖에 운영을 하지 않았지만 도저히 종을 잡을 수 없는 문학상으로 흥미롭기 그지없다”며 “어린이들이 원하는 작품과 작가들이 쓰고 있는 작품의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엔 당선작으로 선정된 김혜영 작가의 ‘놀부와 오르르 펭귄’은 흥부와 놀부 이야기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 이야기를 활용해서 만들어낸 이



(재)삼진강 장학재단이 주최하는 제4회 도깨비그림책문학상 시상식이 최근 열렸다. 김혜영(왼쪽) 작가와 김성범 장학재단 이사장.

이야기다. 초성인 ‘오르르’를 표제로 내세워 궁금zug을 유발시켜 추리력을 키워볼 수 있는 놀이그림책이다. 특히 그림이 만화처럼 터치돼 그림책 분위기부터 장난스럽고 재기발랄하다. 종잡을 수 없는 어린이 맘과 꼭 닮아있다는 평이 나온다. 도깨비그림책문학상은 이밖에도 특이한 사항이 있다. 출판 시기도 고려하지 않고, 타 문학상과 중복 수상도 관계없다는 점이다. 동화작가인 김성범 이사장은 “작가들이 문학상을 수상하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어린이가 뽑은 작품이라는 점과 어린이 독서문화 활성화 기여한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하면 좋겠다”며 “응모 작가들이 마음 졸이지 않고 즐기며 결과가 궁금zug, 흥겨운

문학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시상식은 지난 13일 오후 7시 그림책콘텐츠플랫폼 마들렌플러스 더뮤니버시티에서 진행됐으며 마들렌플러스 유튜브 채널로 라이브 송출했다. 한편 도깨비문학상은 지금까지 제1회 수상자인 릴리아 작가의 ‘조록 거북’ (킨더랜드)이 선정됐다. 어린이가 가볍게 읽을 수 없는 무거운 주제의 작품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제2회 수상자인 문종훈 작가의 ‘날고 싶은 키위’ (놀보의심)은 적잖은 분량이지만 스토리와 정보를 함께 담은 그림책이었다. 제3회 수상자인 이동연 작가의 ‘나에겐 비밀이 있어’ (올리)는 어른과 아이들에게 모두 사랑을 받은 작품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심봉사 재산 가로채 달아난 ‘뽕파 스캔들’

한국국악협회 광주시지회 26일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제2회 빛고을창극제 ‘춘향&놀부’ 공연 모습. <광주국악협회 제공>

‘심청전’ 중 ‘뽕떡어멈’을 모티브로 한 ‘뽕파’는 심봉사를 유혹해 재산을 가로채는 인물이다. 현대에도 다양한 해학창극에서 주요 소재로 다뤄지면서 주목받고 있다. 한국국악협회 광주광역시지회가 ‘뽕파 스캔들’을 오는 26일 오후 7시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에서 펼친다. 시대를 초월한 해학창극을 기치로 내거는 공연으로 제3회 빛고을창극제 일환으로 열린다. 공연은 ‘심청전’ 일부를 각색, 새로운 인물을 추가하거나 시대를 초월한 장면을 연출했다. 1부 오프닝 무대는 아리문화예술단의 ‘난타’를 시작으로 굿모리예술단의 ‘화선무’, 일심가무악단 ‘여풍화류’, 이정숙 무용단 ‘진쇠춤’으로 이어진다. 본 공연인 2부 ‘해학 창극 뽕파 스캔들’은 욕심 많고 심술궂은 뽕파가 주정뱅이 백수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하는 이야기다. 뽕파는 돈에 눈이 멀어 황봉사, 심봉사와 스캔들을 일으키고 심봉사 돈을

훔쳐 도주하기까지 이른다. 1막 1장 ‘365일 중에 366일을 술을 먹는 남자를 만나’를 비롯해 2장 ‘오, 오목한 낫날. 명란 같은 입술. 빼어난 턱선’ 등을 볼 수 있다. 2막 ‘나는 모진 목숨이 죽지도 않고 이 지경이 웬일이란 말이냐’와 3막 ‘허허 뽕떡어멈이네가 도망을 갔네’ 등이 준비돼 있다. 뽕파 스캔들이 탈로 나면서 폭소를 자아내는 ‘아이 천하 의리 없고 사정없는 요년아’ 대목으로 막을 내린다. 총감독을 맡은 함태선 광주국악협회장은 “암흑 같은 시기에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슬기를 엿볼 수 있는 해학창극으로 실컷 웃고 신명을 즐기며, 한해 스트레스를 모두 날리는 ‘힐링’의 시간을 준비했다”며 “이번 공연이 예술인들의 창작 의욕을 고양하고 예향도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했다. 전석 무료 초대.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환경보호 앞장서는 ‘아기돼지 삼형제’

에나엔터테인먼트 창작 오페라, 오늘 ACC 어린이극장



에나엔터테인먼트가 지난해 선보였던 ‘어린이 브레멘 음악대’ 공연 장면. <에나엔터테인먼트 제공>

무서운 얼굴과 달리 상냥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늑대(이승이 분)’. 깨끗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지내던 늑대는 어디선가 수상한 냄새가 밀려오는 것을 느끼면서 악취의 근원을 찾아 헤맨다. 에나엔터테인먼트가 창작 오페라 ‘아기돼지 삼형제’를 24일 오후 4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에서 펼친다. 36개월 이상 어린이들이 즐기기에 좋은 직관적인 내용에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가미한 작품이다. 첫째 돼지(박병철)네 집에 도착한 늑대는 코를 움켜쥐면서 더러운 집을 보고 놀란다. 이후 늑대는 질척이는 길을 건너 둘째 돼지(김지아)네 더러운 집으로 향한다. 집 밖은 후끈거리고 내부는 번쩍이는 셋째 돼지(박주하)네 집까지 둘러본 뒤, 동물 친구들은 한자리에 모여 환경보호에 대한 ‘결심’을 하게 된다. 원작은 늑대가 아기돼지 삼형제의 집을 부수는 플롯이지만, 각색된 내용은 오몰이 하천에 가득 차면서 발생한 악취를 해결하는 데 주목한다. 정리하기를 좋아하는 늑대가 환경 보호와 쓰레기 수거에 앞장서 ‘환경보호’ 중요성을 역설한다. 내레이션 및 참사 역은 박찬미가 맡았으며 지휘에 이현민, 플룻에 고다은, 바이올린 윤예인 등이 출연한다. 문세진(첼로), 정세화(피아노), 이정빈(타악기)도 멜로디를 더한다. 에나엔터테인먼트 김찬우 대표는 “명작 ‘아기돼지 삼형제’를 각색해 환경문제에 접목했으니 음악적 감동 뿐 아니라 교육적인 내용까지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무료 공연.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독립영화관 올 마지막 상영작은?

24일 ‘언니 유정’·25일 ‘미망’...다큐·SF 등 장르 다채

크리스마스 연휴와 한 해의 끝을 앞두고 광주독립영화관에 다양한 작품이 라인업됐다. 냉랭한 현실을 첨예하게 그린 작품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담은 다큐멘터리까지 영화들을 소개한다. 먼저 24일 오후 1시에 상영하는 ‘언니 유정’은 고교 내 ‘영아유기 사건’ 당사자로 동생 기정(이하은 분)이 자백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면서 펼쳐지는 언니 유정(박예영)의 이야기다. 기정의 침묵 속에서 분투하는 유정의 심리, 갈등이 잘 묘사돼 있다.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세입자’를 볼 수 있다. SF, 공포 판타지 장르로 월셋집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신동’이 화장실에 세입자를 들인 뒤 겪게 되는 괴기스러운 내용을 담았다. “저기 위에 호수 말이야. 엄청 깊어 보이는데, 빠지면 못 나오겠지?” 오후 4시 50분부터 상영하

는 ‘아기미’도 흥미로운 로그라인으로 이목을 끈다. 주인공이 녹록치 않은 극단 생활을 이어가던 중 7년 동안 만나지 않았던 아버지의 부고 소식을 갑작스럽게 듣게 된 뒤 마주하는 불안을 극화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는 ‘팬텀아, 엘리스’가 오후 1시, 오후 2시 40분에는 ‘미망’이 관객들을 만난다. 이밖에 ‘힘을 낼 시간’은 오후 4시 40분 스크린에 걸리며 오후 6시 40분 개봉하는 ‘면접교실’도 있다. 광주독립영화관 한재섭 관장은 “연말을 맞아 장르가 다양한 작품들을 준비했다”며 “문화와 영화를 통해 한 해를 차분히 마무리하고 사유의 폭을 넓혀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고 했다. 관람료 1만 원, 디트릭스 예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